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목 차

■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이 준 협 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동향분석실 : 조 규 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r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지난 2012년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이후 원화 가치에 비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2013년 1월 평균 83.0달러에서 2015년 9월 평균 120.0달러 30.1% 절하된 반면 원/달러 환율은 동기간 1,065.4원에서 1,184.7원으로 10.1% 절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일본 제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대중국 수출단가 수준 변화) 2011~2014년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품목별 수출단가를 살펴본 결과, 엔저로 인한 일본산 제조업 품목의 수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S 코드 6단위 기준 제조업 2,498개 품목 중 일본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한국보다 높은 품목 수는 2011년에는 1,778개였지만 2014년에는 1,540개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일본보다 높은 품목 수는 같은 기간 동안 313개에서 459개로 증가했다. 이는 결국 엔저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달러로 표시된 일본산 제품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내 산업별로 보면 모든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단가가 하락하였다. 특히 석유화학과 금속·비금속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단가가 하락한 품목이 많았다. 이는 두 산업이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고 공급과잉이 있는 산업의 특성상 가격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일본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한국보다 높은 품목수는 2011년에는 322개였지만 2014년에는 282개로 감소하였다. 금속·비금속 산업에서는 한국보다 대중국 수출단가가 높은 일본 제품은 같은 기간 동안 257개에서 210개로 감소하였다.

< 한국, 일본 제조업의 수출단가 수준별 품목수 비교 >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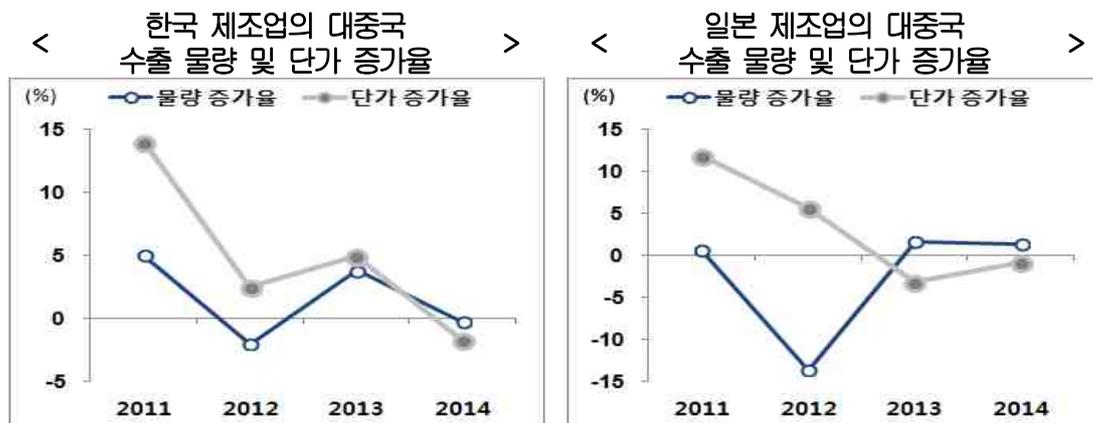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품목수 증감
한국 < 일본	1,778	1,762	1,585	1,540	-238
한국 = 일본	407	394	501	499	92
한국 > 일본	313	342	412	459	146

자료 : UN Comtrade.

- 주 : 1) 품목별 수출단가는 품목별 수출금액을 수출물량(Kg)으로 나눈 kg 당 달러를 의미.
 2) 품목수 증감은 2011년 대비 2014년의 품목수 변화를 의미.
 3) 품목별 수출단가 수준은 양국간 수출단가가 $\pm 25\%$ 이내일 경우 양국간 수출단가가 비슷한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pm 2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한국 또는 일본의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으로 분류.

(주요 제조업별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제조업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감소했지만, 수출단가 하락에 힘입은 일본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대중국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3년 4.9%에서 2014년에는 -1.8%로 마이너스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율은 동기간 3.8%에서 -0.3%를 기록하여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다. 반면 대중국 수출단가 증가율이 2013년 -3.1%에서 2014년 -0.4%로 하락세가 지속된 영향에 힘입은 일본의 제조업 수출물량은 동기간 1.6%에서 1.4%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내 산업별로 보면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자급률 상승 등으로 한일 모두 대중국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한국의 수출물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금속·비금속, 기계산업 및 IT**의 경우 일본은 수출단가 하락이 수출물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의 수출물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수송기계** 산업은 중국의 수입 수요 확대에 힘입어 한일 모두 수출물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수출단가도 크게 하락하면서 향후에도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료 : UN Comtrade.

주 : 1) 수출물량은 중량(Kg), 수출단가는 Kg당 달러.

2) 품목별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가율을 품목별 수출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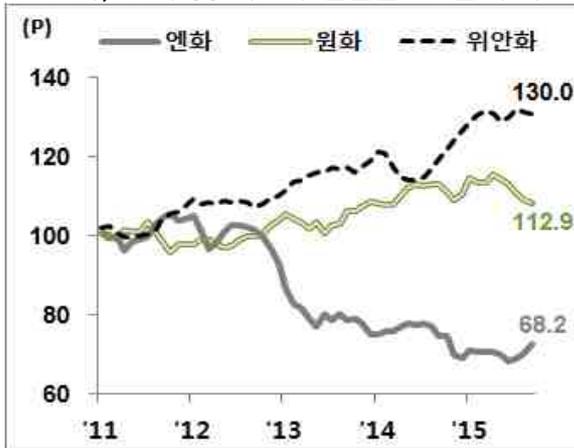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수출 물량 증가는 한국의 수출 물량을 잠식하여 전체 국내 수출 경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첫째,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안정화 대책,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원/엔 환율의 변동성 축소 및 엔저 현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수출가격 변화에 민감한 산업들과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유동성 지원·외환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1. 개요

○ 엔저 지속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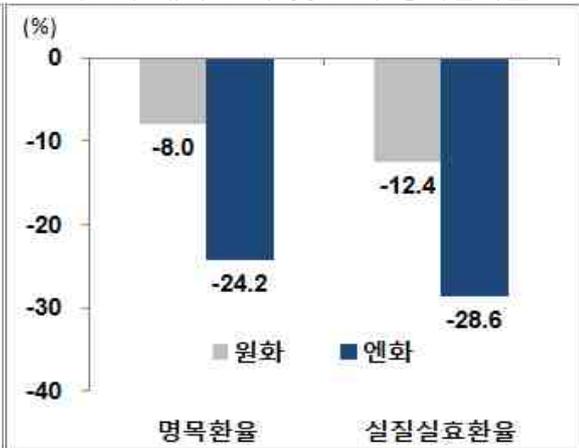
- 엔화에 비해 원화의 상대적인 가치가 높은 엔저원고 현상 지속
 - 지난 2012년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이후 엔/달러 환율은 2013년 1월 평균 83.0달러에서 2015년 9월 평균 120.0달러 수준으로 지속 상승(30.1% 절하)
 - 반면 원/달러 환율은 동기간 1,065.4원에서 1,184.7원으로 10.1% 절하
 - BIS에 따르면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2013년 1월 86.9p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 6월 최저치인 68.3p를 기록(2015년 9월 72.6p)
- 이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에 비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지속
 - 중국 위안화에 대해 명목환율상 원화는 2013년 1월 평균 대비 2015년 9월 평균 동기간 8.0% 절하된 반면 엔화는 24.2% 절하
 - 실질실효환율로는 동기간 원화는 12.4% 절하되었으며 엔화는 28.6% 절하
 -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일본과의 수출 경쟁이 심한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대중국 수출 악화 우려
 - * 중국 시장에서의 양국간 수출 경합도(HS코드 4단위 기준)는 2008년 0.548에서 2013년 0.556으로 상승¹⁾

< 원화, 엔화 및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추이 >



자료 : BIS.
주 : 2010년 100 기준.

< 위안화 대비 원화 및 엔화 평가절하율 >



자료 : 한국은행, BIS.
주 : 2013년 1월 평균 대비 2015년 9월 평균 환율의 평가절하율.

1) 수출경합도는 양국간 수출 품목의 경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수출경합도 = $\sum MIN(X_a^i/X_a, X_b^i/X_b)$, 단 X_j^i/X_j 는 j국 수출에서 i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2.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1) 한일 제조업 품목의 대중국 수출단가 수준 변화

- 2011년 이후 한국과 일본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를 품목별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수출단가가 한국보다 더 높은 품목의 수가 크게 감소
 - HS 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수출단가 비교가 가능한 제조업 2,498개 품목 중 일본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한국보다 높은 품목의 수는 2011년 1,778개에서 2014년 1,540개로 감소²⁾
 - 반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단가가 비슷한 품목의 수는 2011년 407개에서 2014년 499개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수출단가가 일본보다 높은 품목의 수 역시 2011년 313개에서 2014년 459개로 증가

< 한국, 일본 제조업의 수출단가 수준별 품목수 비교 >

(단위 : 개)

	2011	2012	2013	2014	품목수 증감
한국 < 일본	1,778	1,762	1,585	1,540	-238
한국 = 일본	407	394	501	499	92
한국 > 일본	313	342	412	459	146

자료 : UN Comtrade.

- 주 : 1) 품목별 수출단가는 품목별 수출금액을 수출물량(Kg)으로 나눈 kg 당 달러를 의미.
 2) 품목수 증감은 2011년 대비 2014년의 품목수 변화를 의미.
 3) 품목별 수출단가 수준은 양국간 수출단가 차이가 $\pm 25\%$ 이내일 경우 양국간 수출단가가 비슷한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pm 2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한국 또는 일본의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으로 분류³⁾.

- 주요 산업별로 볼 경우 모든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단가가 높았던 품목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석유화학과 금속·비금속 산업의 수출단가 변화에 따른 품목 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남⁴⁾

2) 수출단가 계산이 가능한 품목은 HS 코드 6단위 기준 총 2,498개이며, 해당 품목들의 대중국 수출 합계는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의 70.1%를 차지.

3) 양국간 수출단가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산업내무역 중 수평적 및 수직적 분업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Greenaway, Hine and Milner(1995)의 방법을 응용. 이에 따르면 양국간 제품의 단위 가격 차이가

$$\frac{1}{1.25} \leq \frac{P_{abi}}{P_{bai}} \leq 1.25 \text{ (단, } P_{abi} \text{는 a국이 b국에서 수입하는 i품목의 단위가격)를 만족한다면 수평적 무역관계를 의미.}$$

이에 사용된 25% 기준은 환율 변동 등이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위이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 품목의 수가 변동한 것은 환율 변동에 따른 제품 단위 가격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 기술 수준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정)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 석유화학 : 일본의 수출단가가 더 높았던 품목의 수가 2011년 322개였으나 2014년에는 282개로 40개가 감소한 반면, 한국이 높은 품목의 수는 95개에서 116개로 21개 증가
- 금속·비금속 : 일본의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의 수가 2011년 257개에서 2014년 210개로 47개 감소한 반면, 한국이 높은 품목의 수는 44개에서 85개로 41개 증가
- 기계 : 일본의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의 수가 304개에서 267개로 37개 감소한 반면 비슷한 수준의 품목 수는 18개, 한국이 높은 품목의 수는 19개 증가
- IT : 일본의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 수가 16개 감소한 반면 비슷한 수준의 품목수는 7개, 한국이 높은 품목 수는 9개 증가
- 수송기계 : 총 27개의 품목 중 일본의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 수는 6개 감소하였으며 한국이 오히려 높은 품목은 1개 증가에 그침

< 한국, 일본의 주요 산업별 수출단가 수준별 품목수 비교 >

(단위 : 개)

구 분		2011	2014	품목수 증감
석유화학 (529개)	한국 < 일본	322	282	-40
	한국 = 일본	112	131	19
	한국 > 일본	95	116	21
금속비금속 (394개)	한국 < 일본	257	210	-47
	한국 = 일본	93	99	6
	한국 > 일본	44	85	41
기계 (389개)	한국 < 일본	304	267	-37
	한국 = 일본	48	66	18
	한국 > 일본	37	56	19
IT (208개)	한국 < 일본	151	135	-16
	한국 = 일본	30	37	7
	한국 > 일본	27	36	9
수송기계 (27개)	한국 < 일본	23	17	-6
	한국 = 일본	3	8	5
	한국 > 일본	1	2	1

자료 :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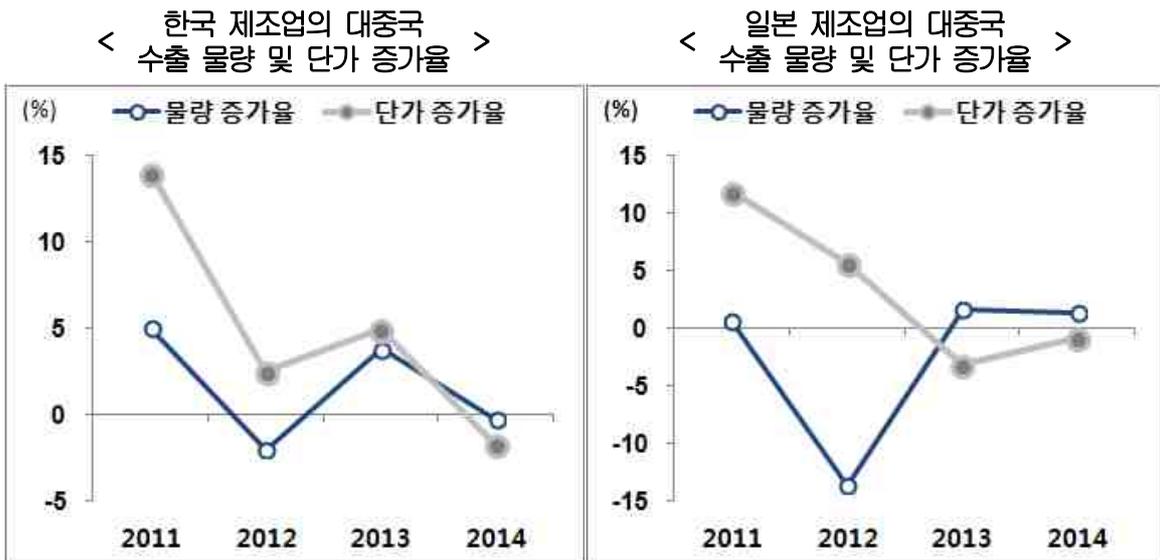
주 : 품목명에 있는 괄호는 해당 산업의 분석 대상 품목수를 의미.

4) 주요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공업 및 기타 제조업 품목의 수는 875개이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4년 기준 71.6억 달러로 분석 대상이 되는 2,498개 제조업 품목의 대중국 총수출액 1,115.0억 달러 대비 6.4%를 차지.

2) 주요 제조업별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⁵⁾

○ (제조업) 한국은 대중국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감소했으나 일본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수출단가 하락 등에 힘입어 증가세 유지

- 한국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와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4년 들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⁶⁾
 - 한국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2년 2.5%, 2013년 4.9%로 상승한 이후 2014년 -1.8%로 하락
 - 한국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3년 3.8%에서 2014년 -0.3%로 마이너스로 전환
- 일본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는 2013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수출물량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 일본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3년 -3.1%, 2014년 -0.8%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
 - 일본 제조업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3년 1.6%로 플러스 전환하였으며, 2014년에도 1.4%로 증가세 유지



자료 : UN Comtrade.

주 : 1) 수출물량은 중량(Kg), 수출단가는 Kg당 달러.

2) 품목별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가율을 품목별 수출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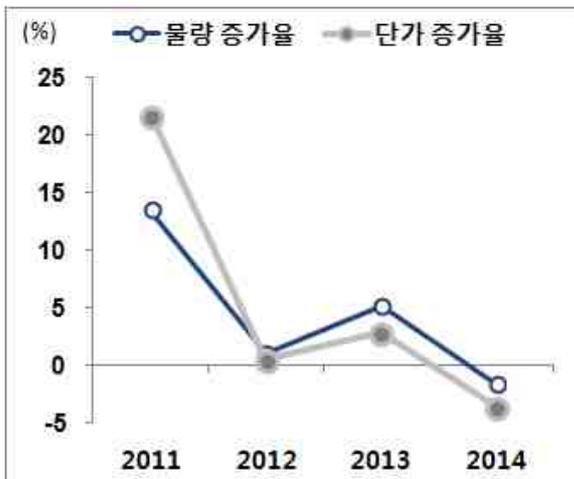
5) 제조업 품목의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가율은 전년도 수출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였기 때문에 수출단가와 수출물량 증가율의 합이 수출금액 증가율과 일치하지 않음.

6) 본 보고서 상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수출단가는 kg당 달러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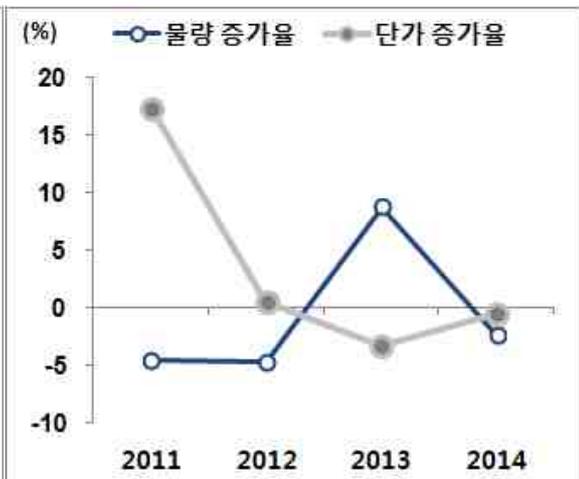
○ (석유화학) 중국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양국 모두 대중국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물량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 한국 석유화학 품목의 경우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단가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수출물량도 감소세로 전환
 -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3년 2.9%에서 2014년 -3.6%로 마이너스로 전환
 -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물량 증가율 역시 2013년 5.2%에서 2014년 -1.7%로 하락
- 일본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단가 역시 하락했으나 수출 물량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음
 - 일본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3년부터 -3.3%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도 -0.4%로 하락세 지속
 - 일본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물량 증가율은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3년 8.7%로 증가세 전환한 이후 2014년 들어 -2.4%를 기록
 - 2013년 수출물량 증가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2014년 수출물량 감소폭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

< 한국 석유화학 품목의 대중국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



< 일본 석유화학 품목의 대중국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



자료 : UN Comtrade.

주 : 1) 수출물량은 중량(Kg), 수출단가는 Kg당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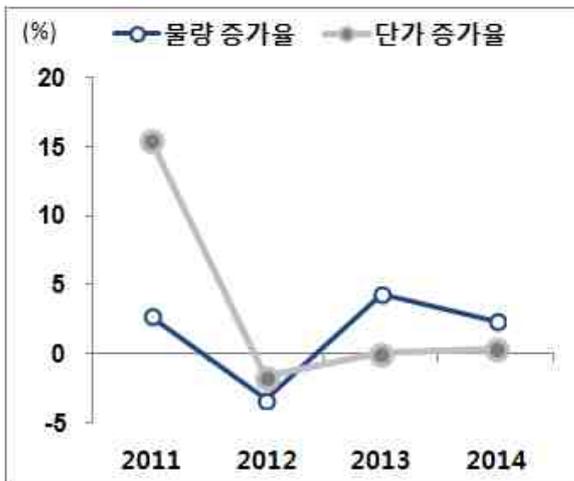
2) 품목별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가율을 품목별 수출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7) 석유화학 품목은 2014년 기준 일본의 대중국 총수출의 16.7%,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의 23.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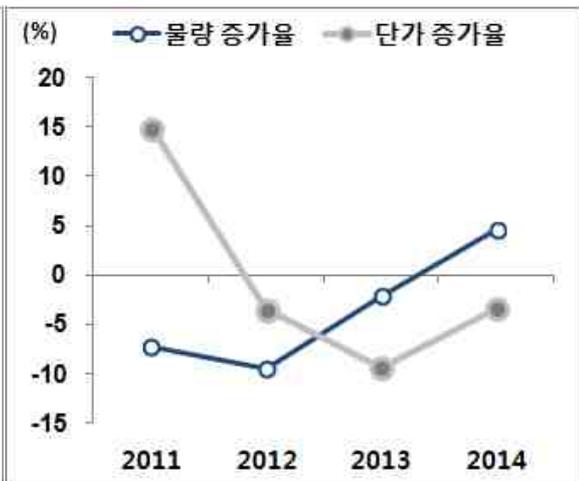
○ (금속 및 비금속) 일본은 수출단가 하락 등에 힘입어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한국은 수출물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⁸⁾

- 한국의 대중국 금속 및 비금속 수출단가는 미약하지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
 - 한국의 대중국 금속 및 비금속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2년 -1.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0.1%, 2014년 0.4% 등으로 소폭이지만 플러스 전환
 - 한국의 대중국 금속 및 비금속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2년 -3.3%에서 2013년 4.3%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 2014년 들어 2.4%로 증가율이 다소 하락
- 일본의 금속 및 비금속 품목 대중국 수출단가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2014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
 - 일본의 대중국 금속 및 비금속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2년 -3.4%, 2013년 -9.4%, 2014년 -3.3% 등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
 - 일본의 대중국 금속 및 비금속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2년 -9.5%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1%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4.5%로 플러스 전환

< 한국 금속 및 비금속 품목의 대중국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



< 일본 금속 및 비금속 품목의 대중국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



자료 :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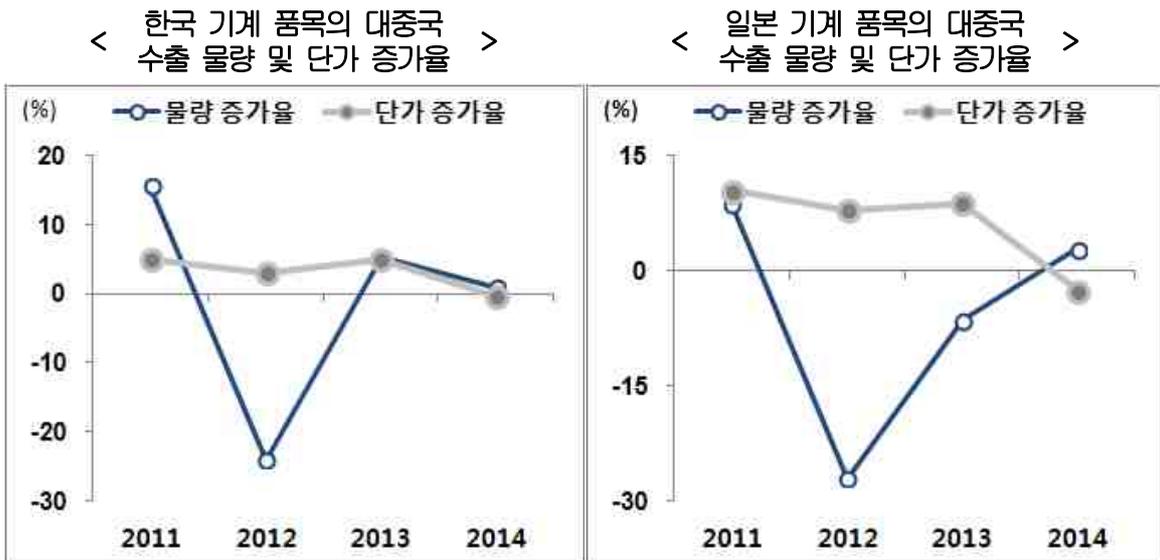
주 : 1) 수출물량은 중량(Kg), 수출단가는 Kg당 달러.

2) 품목별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가율을 품목별 수출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8) 금속 및 비금속 품목은 2014년 기준 일본의 대중국 총수출의 9.0%,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의 5.4%를 차지.

○ (기계) 2014년 들어 일본의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수출물량도 증가한 반면 한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세가 둔화)

- 한국의 대중국 기계 수출단가는 2014년 들어 소폭 하락했으며 수출물량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 한국의 대중국 기계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3년까지 약 4~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들어 -0.4%로 하락
 - 한국의 대중국 기계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2년 -24.1%에서 2013년 5.3%로 상승했으나 2014년에는 0.9%로 하락
- 일본의 대중국 기계 수출단가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4년 들어 플러스로 전환
 - 일본의 대중국 기계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2~2013년 약 7~8%대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들어 -2.5%로 급락
 - 일본의 대중국 기계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4년 2.8%로 플러스 전환하였으며 증가율 자체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자료 : UN Comtrade.

주 : 1) 수출물량은 중량(Kg), 수출단가는 Kg당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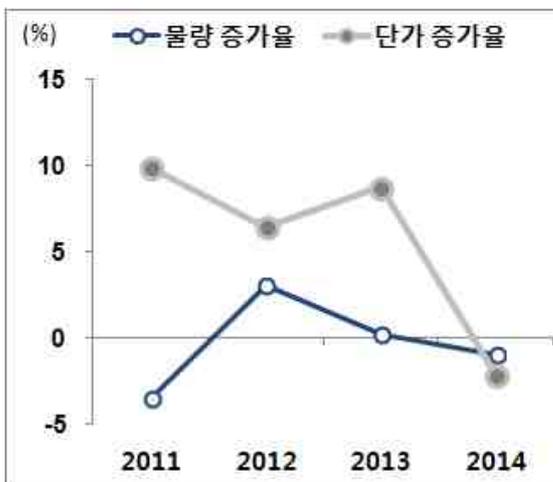
2) 품목별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가율을 품목별 수출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9) 기계(일반기계 및 전기기계) 품목은 2014년 기준 일본의 대중국 총수출의 19.3%,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의 8.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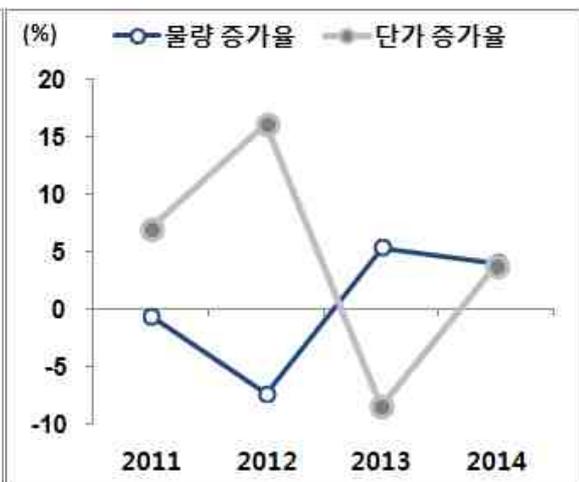
○ (IT) 한국은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 수출단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일본은 수출물량 증가세 지속¹⁰⁾

- IT 품목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2014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율이 하락
 - 한국의 대중국 IT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3년 8.7%에서 2014년 -2.2%로 마이너스 전환
 - 반면 한국의 대중국 IT 수출물량 증가율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2년 3.0%에서 2013년 0.2%로 낮아졌으며, 2014년에는 -1.0%로 감소세로 전환
- 일본의 경우 대중국 IT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수출물량은 2013년 이후 증가세 지속
 - 일본의 대중국 IT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3년 -8.5%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들어 3.9%로 다시 플러스를 기록
 - 일본의 대중국 IT 수출물량은 2013년 5.3%, 2014년 4.0% 증가하며 증가세가 지속

< 한국 IT 품목의 대중국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



< 일본 IT 품목의 대중국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



자료 : UN Comtrade.

주 : 1) 수출물량은 중량(Kg), 수출단가는 Kg당 달러.

2) 품목별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가율을 품목별 수출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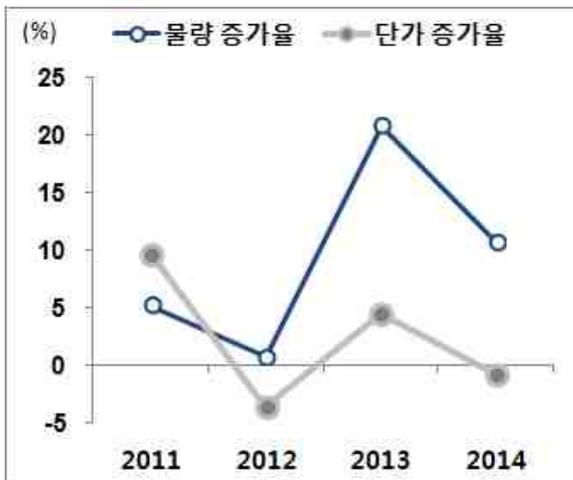
10) IT 및 정밀기기 품목은 2014년 기준 일본의 대중국 총수출의 19.5%,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의 30.0%를 차지.

○ (수송기계)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어 양국 모두 수출물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수출단가도 크게 하락한 상황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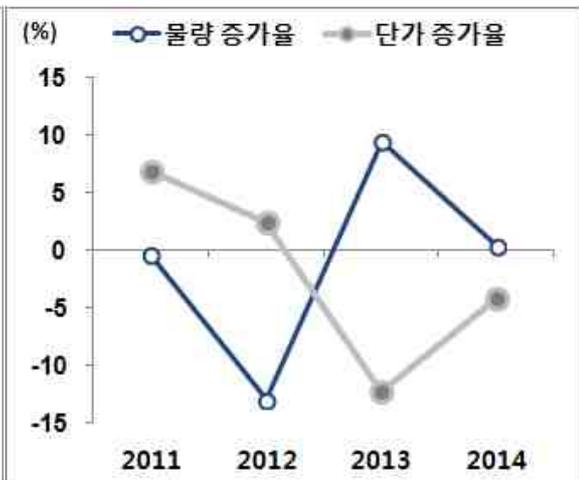
- 한국의 대중국 수송기계 수출단가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수출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송기계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2년 -3.6%에서 2013년 4.5%로 상승했다가 2014년 다시 -0.9%로 마이너스 전환
 - 한국의 대중국 수송기계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2년 0.7%, 2013년 20.8%, 2014년 10.7%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일본의 대중국 수송기계 수출단가는 2013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2014년 증가율이 하락했으나 플러스 유지
 - 일본의 대중국 수송기계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2년 2.5%에서 2013년 -12.2%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도 -4.2%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
 - 일본의 대중국 수송기계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2년 -13.0%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9.4%로 크게 상승했으며 2014년에도 0.4%로 플러스 증가율 유지

< 한국 수송기계 품목의 대중국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



< 일본 수송기계 품목의 대중국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가율 >



자료 : UN Comtrade.

주 : 1) 수출물량은 중량(Kg), 수출단가는 Kg당 달러.

2) 품목별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가율을 품목별 수출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11) 수송기계 품목은 2014년 기준 일본의 대중국 총수출의 5.6%,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의 3.9%를 차지.

3. 시사점

-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위축과 더불어 일본의 대중국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입지가 위협 받을 우려
 -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자급률 상승 등으로 수입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중국 수출단가 하락은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방지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 및 국제 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여부 등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향후 원화 환율의 급등락 하는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환율 미세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수출가격 변화에 민감한 산업들과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유동성 지원·외환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
 - 일본과 제품간 품질 차이가 적고 경쟁이 심한 석유화학, 철강 등 수출가격 변화에 수요가 민감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
 - 특히 일본과의 수출단가 수준이 역전된 주요 품목들이 대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보다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생산품인 소재·부품이 중심인 만큼 이들 산업에 속한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환위험관리 방법을 모르거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 인해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¹²⁾
- 또한 대일 수출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대중 수출 기업에도 확대하여 대중 수출기업들의 단기적 자금 사정 악화를 해소해줄 필요
- 우리 수출품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국 이외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노력도 지속할 필요
-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켜 일본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
 -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일본과의 제3국 수출시장 경합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지속
- 장기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국내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2014년 -1.6%를 기록한데 반해 일본은 2.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국내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에 비해 일본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추세
 - 이는 결국 국내 수출기업들의 투자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과의 기술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재검토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은 물론 적절한 투자 운용 계획을 실천해야 함
 -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함 **HRI**

조규립 선임연구원 (2072-6239, jogyurim@hri.co.kr)

12)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2014.10.0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재인용.